



'특급용병' 로페즈가 2011년에도 KIA 마운드를 책임진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용병투수 아킬리노 로페즈(35)와 지난해와 같은 계약금 7만5000달러, 연봉 30만달러 등 총 37만5000달러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2009년부터 KIA 마운드를 지켜온 로페즈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로페즈는 한국 데뷔 첫 해인 2009년 3.12의 방어율로 14승 5패를 기록하며 팀의 정규시즌 1위를 이끌었다.

SK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9이닝을 훌륭한 책임지며 완봉승을 거뒀던 로페즈는 7차전 위기의 상황에서는

## 로페즈 “더는 화풀이 없다”

### KIA와 37만5000달러에 재계약.. 콜론 거취 저울질

중간계투로 ‘깜짝 등판’해 KIA의 영웅이 됐다.

올 시즌에는 틀어놓았던 투구로 4.66의 방어율로 4승10패 1세이브를 거두는데 그쳤다. 경기 도중 실수를 하는 동작에게 화를 내고 덕아웃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출연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우승의 주역 로페즈는 ‘미운 오리’로 전락했다.

하지만 후반기 위력을 되찾은 로페즈는 ‘백의종군’하며 2011년 평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도미니카에 머물고 있는 로페즈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러닝 등을 하며 내년 1월 스프링캠프 학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도미니카 원정리그를 뛰었지만 이번 겨울엔 ‘무조건 휴

식’ 모드다. 원터리그 참여로 올 시즌 전반기 구위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로페즈는 “올해는 너무 아쉬운 시즌이었다”며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KIA타이거즈 구단과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시즌 전력면에서 팀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팀워크를 저해하는 등 구단과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죄악의 피칭으로 내 자존심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2011 시즌에는 결코 그런 일 없이 최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로페즈와 용병 파트너를 구성했던 콜론의 거취에 대해서는 KIA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강속구를 앞세운 콜론은 KIA 선발로 나선 후 시즌 3.91의 방어율로 8승7패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한국 무대에 데뷔했다. 주로 중간계투로 활약했던 만큼 이닝 소화력이 문제지만 이미 한국 무대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좌완 가움에 시달려온 KIA가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좌완 트레이너의 영입을 고려하면서 남은 용병한 자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콜론은 2011년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된 만큼 원소속구단인 KIA와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내년엔 가을잔치 하고 싶다”

### 팀 PO진출 최우선...연봉협상 에이전트와 협의

#### 추신수 미국으로

메이저리그에 흘러 남은 한국인 타자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대박 계약의 꿈을 안고 27일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프로야구에서 2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를 달성, 팀의 간판스타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로 자리매김한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끝난 10월 10일 귀국했고 광주에 아시안게임에서 9이닝을 헤쳐온 책임지며 완봉승을 거뒀던 로페즈는 7차전 위기의 상황에서는



추신수가 27일 팀복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아내 하원미씨와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까운 애리조나주 곳이어에서 열릴 클리블랜드의 스프링캠프에서 곧바로 불꽃타를 날릴 수 있도록 방망이도 예열할 예정이다.

추신수는 “몸은 힘들었지만 좋은 자리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다. 좋은 추억을 안고 간다”면서 “1월 중순까지는 쉬다가 몸 관리를 해서 스프링캠프에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워낙 많은 곳을 돌아다녀 살도 찌고 시즌 때마다 더 피곤한 상태라던 추신수는 “상 밭은 것도 좋지만 장애 우 3명을 만난 게 기억에 남는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없이 사회를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느꼈다”며 “빅리그에서 마이너리거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벼르며 특례 조치를 누린 추신수는 빅리그 진출 후 10년간 짓눌려 온 부담을 벗어던지면서 거액을 손에 훨씬 잡았다.

정규 시즌에도 새벽 별을 보며 훈련장을 찾는 등 한시도 연습을 거르지 않았던 추신수는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서서히 체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2011년 2월 중순부터 집에서 가

봉수준인 46만1000달러를 받은 추신수는 연봉 조정을 신청하면 300만~400만달러 수준으로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추신수의 금메달을 상수 들고 환영했던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 장기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듣지 못했다”며 1

년 계약 또는 추신수에게 거액을 안겨줄 수 있는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에 더 신경 쓰는 눈치다.

“성적만큼 당당하게 대우받고 싶

다”고 말한 추신수는 미국 도착과 함께 보라스와 머리를 맞대 지지부진한 연봉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좌우명으로 삼은 추신수는 안타, 홈런, 타점, 도루 등 올해 올린 성적보다 더 나은 기록을 내고자 2011년을 서둘러 시작한다.

추신수는 “개인 성적보다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기회 잔치에서 미국의 전국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고 싶다는 의욕도 숨기지 않았다.

남자 프로배구에 일대 희オ리를 몰고 올 ‘음병급 거포’ 문성민(24·현대캐피탈)이 드디어 출격한다.

신인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현대캐피탈에 입단,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별금 1000만원과 함께 2010-2011 정규 시즌 1라운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문성민은 26일 1라운드가 끝나 즉석해 풀리면서 28일 오후 7시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릴 우리캐피탈과 흥경기부터 코트를 누빈다.

문성민은 27일 “그간 시간이 참 안 있고 초조했는데 이를 후 경기를 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렌다. 팀이 4연승을 하면서 밤동이 걸린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도록 힘을 보태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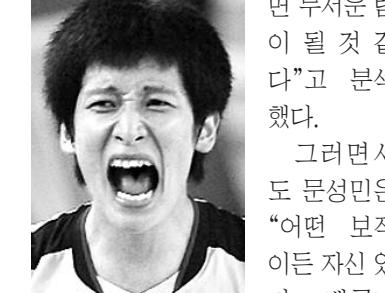
KOVO의 정체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했던 문성민은 “배구 선수가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경기를 본다. 게 좋지는 않았지만 아시안게임 후 떨어진 체력을 만회하고 상대팀도 분석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이겨냈다. 도리어 뛸 때보다 더 많이 긴장했다”고 말했다.

1라운드 6경기를 지켜본 문성민은 “수비가 안정된 대한항공이 조직력

에서 가장 났고 김요한, 이경수, 폐

치가 이끄는 LIG손해보험은 공격력이 최고다. 가빈 슈미트와 박철우의 궁합이 좋아질 삼성화재도 강팀이다. KEPCO45도 장신군단이고 폐기

가 앞서는 우리캐피탈은 분위기를 타



면 무서운 팀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문성민은 “어떤 보직이든 자신 있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배구가 단체 운동이니 혼자 뛰는 것보다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자신 있는 서브와 블로킹으로 팬들에게 다가서겠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포 앞 서브와 화끈한 강타를 겸비한 문성민이 마침내 선을 보이면서 우승에 도전하는 김호철 현대캐피탈 감독의 구상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 감독은 “성민이를 레프트로 쓰기, 라이트로 쓸지 생각이 복잡하다. 경기 상황과 상대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복안을 밝혔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가 2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주장 최희섭 등 선수단 전원과 프런트가 참석한 가운데 납夙식을 겸한 족구대회를 열었다. 투수조 신웅운(왼쪽)과 야수조 김선빈이 공을 다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족구하는 호랑이들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

쪽